

# 창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86**  
2024 / 02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TIK**  
단체복, 유니폼 제작 전문업체  
소량 주문 가능  
0812 8118 6939  
www.kotik.id mike@kotik.id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PT. HESSA**  
HYUNDAI ENGINEERING & PT. SSA

**PT. HESSA 개소식 열려  
현대엔지니어링과 PT. SSA 빅텐트 쳤다.**

지난 17일 현대엔지니어링과 인도네시아 토종 한국건설기업 PT.SSA가 하나되어 PT.HESSA(법인장:김장호)를 설립하고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승재 현대엔지니어링 전략기획부 사업부장을 비롯해 PT.SSA 황의상 대표이사, 양종호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국토교통관, 조성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토교통관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도네시아 건설사업에 큰 역할을 해줄 PT.HESSA의 출범을 축하했다.

임승재 현대엔지니어링 전략기획부 사업부장은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준비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했으며 인도네시아는 신성장국으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산업발전과 함께 확대되어 세계 5위, 아세안 1위 시장이 되었다고 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PT.HESS 개소식 행사후 기념촬영

비전의 중심에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현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으며 PT.HESSA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공략에 대한 첫 걸음이고 현대엔지니어링의 뛰어난 기술력과 SSA의 현지시공 전문성의 시너지가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T.SSA황의상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32년 경험을 토대로 제2의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으며 이미 현지화한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낮은 감은 있지만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도약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성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토교통관은 PT.HESSA의 설립은 우리나라 건설사가 나아가야 하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한국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현대엔지니어링과 PT.SSA와의 조인트벤처는 우리가 가지고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PT.HESS 김장호 법인장

고 했다. 한편 양종호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국토교통관은 지난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 고금리 기조, 러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도 우리 해외 건설기업들은 7.5%늘어난 333억불을 수주했으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에서 전년도 70%의 수주에 그쳤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산업설비 발주의 지연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했으며 공급망 개선과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약 8.2%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사업을 포함하여 에너지, 교통, 인프라 부분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연평균 10%정도의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PT.HESSA의 출범은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에 접근하는 우리기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과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동향을 보면 금번 PT.HESSA의 출범은 그 어느때보다 시의적절한 출범이라 사료되고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기업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봄직하다.

**우기 맞아 홍수, 산사태, 화산 분출, 선박사고 등 주의**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 통해 우기철 안전 주의 공지**

인도네시아 전역이 우기에 접어든 가운데 홍수, 산사태, 화산 분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8일 동포안내문을 통해,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방도로 산사태, 도서지역 여객선(페리) 이동 시 높은 파도에 의한 전복사고, 항공기 사고, 스노클링 및 스킨스쿠버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안전공지를 냈다. 일부 활화산은 화산 활동이 증가해서 경계 또는 주의 등의 경보가 발효됐고, 분화구 주변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 곳도 있다. 한국대사관은 마라뻬(서부수마트라) 화산처럼 갑작스런 분출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2단계 이상 경보가 발효된 화산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산활동 3단계(경계) 경보가 발효된 화산은 아낙 끄라까따우, 스페투, 머라뻬(자바), 레워포비 라끼라끼(NTT) 등이다. 2단계(주의)와 1단계(관심) 경보가 발효된 활화산도 40여 개에 달한다. 한국대사관은 화산은 안전거리를 설정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때문에 폭발로 인한 위험은 적으나, 분화로 인해 화

산재가 상공을 덮을 경우 인접한 공항이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발리-롬복, 머락-람뻬(순다해협) 구간 선박을 이용할 경우,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 높은 파도로 인한 전복사고를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우기에는 천둥과 번개도 빈번하므로, 야외 활동 시 낙뢰 관련 안전규정을 준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 10GWh→30GWh' LG엔솔-현대차, 인도네시아 합작공장 증설 추진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합작공장을 찾아 배터리 리셀 조립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합작 구축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3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BYD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결정한 가운데 현대차와 BYD의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합작사(JV) HLI그린파워는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HLI그린파워는 현재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연산 10기가와트시(GWh) 규모 합작 공장을 구축했다. 전기차 배터리 15만대분 규모로 4개 라인으로 구성됐다.

HLI그린파워는 현 공장 인근에 두 번째 공장을 세울 계획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공장은 20GWh 규모로 구축된다. 완공되면 HLI그린파워 배터리 생산능력은 총 30GWh로 늘어나게 된다.

신설 공장의 생산능력(CAPA)

은 1공장보다 2배로 커지지만 라인수는 6~7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당 효율성을 높여 설비 투자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관련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LI그린파워 인도네시아 공장은 국내 완성차 1위 현대차와 배터리 1위 LG에너지솔루션의 첫 합작공장이다. 양사는 2021년 9월부터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설을 시작해 지난해 6월 완공하고 하반기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가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신규 양산이 시작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현대차 인도네시아 JV가 있다”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준비해서 안정적으로 양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코

발트·망간(NCM)에 알루미늄(A)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배터리를 생산해 현대차·기아 전기차에 탑재할 계획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에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양산 일정을 미루지 않고, 증설도 추진하는 건 인도네시아를 중요 시장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세계 6위 완성차 시장이다. 여기에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기차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꼽힌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이 잇단 진출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현대차에 이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도 최근 인도네시아에 13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움직임에 많은 완성차 업체가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은 차질없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합작공장 증설 관련 아직 구체적인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 코참, '2024 상공인의 날' 열어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가 2024년 신년회를 겸한 ‘상공인의 날’ 행사를 1월 25일, 자카르타 스다유 인도 골프장(Sedayu Indo Golf, PIK)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재인니한인회 박재한 회장 등의 내외빈과 회원사 임원 16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 1부 골프 행사, 2부 만찬과 자카르타 한인무용단의 진도 북 공연, 초대가수 STARBE(현지 K-POP걸그룹)의 무대,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이강현 코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해 녹록지 않은 기업 상황에도 묵묵히 이겨내고 갖는 자리인 만큼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회원사들을 환영했다.

이 회장은 “요즘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코참은 그 중심에서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시장상황이나 투자 정보 등을 정확하고 신속히 제공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과 “최근 다양



히 진출하는 대기업과 이미 진출하여 성공한 기존 기업을 잘 아울러 인니 정부에 하나된 큰 목소리를 내고, 게이트웨이 역할 및 CSR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은 물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덕 대사는 추사에서 “대사관의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항공협정개정으로 합리적인 항공료를 내고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코참과 한인회 등과 협력하여 다각적 채널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을 해외 경제단체로 현재 250개의 회원사를 보유한 코참은 지난 1991년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위원회로 출발, 확대 개편하고 2022년 7월 제6대 코참이 출범하여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www.f1-logix.com

## 하늘길, 땅, 바닷길 그리고... F1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 인도네시아 총선 출마한 한인 김종성 변호사의 도전

수도 전역에 설치된 수많은 총선 홍보 배너들 중 골짜르당으로 출마한 김종성 후보의 배너는 어딘가 특별한 점이 있다. 올해 60세가 된 그는 자카르타 제2선거구에 배정된 일곱 개 의석 중 하나를 얻기 위한 무한경쟁에 뛰어들었다.

캠페인 포스터에서 외국인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의 이름을 보고 그가 정당한 출마자격을 가졌는지 묻는 질문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고 그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하지만 자카르타포스트 기자가 직접 만나본 김종성 후보는 인도네시아에 온지 30년이 되었고 이미 10년 전인 2013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합법적인 출마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섬유산업 계통에서 사업가로 일했고 나중엔 법조계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았다.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UI)에서 법학부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법무법인 인도양(Indoyang and Partners)을 설립해 그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골짜르당의 대중조직인 '꼬스고로1957(Kosgoro 1957)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처음 인도네시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2023년에는 꼬스고로 법제처(Gakum) 책임자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일선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의뢰인들의 필요와 이해관계에만 주목했지만 꼬스고로 법제처장이 된 후 많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



▲골짜르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성 후보의 선거 배너가 길가에 걸려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의 어려운 점과 도움이 절실한 부분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꼬스고로 법제처장으로 일하면서 절절히 실감한 것은 취약계층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이며 국회의원 후보가 된 지금 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당선되면 골짜르당을 통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장학기금을 이끌어내고 대학생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학생대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외이주노동자들의 애환도 그가 당선되면 반드시 다루고자 하는 이슈다.

그는 해외 취업을 위해 해외이주노동자 모집 에이전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일자리가 바로 나서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줄곧 대기하는 동안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할 빛은 늘어나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는 해외이주노동자들이 인력송출회사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다 합리

적인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박찬 총선 경쟁

373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자카르타의 세 개 선거구에는 자카르타 주민들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모두 합쳐 990만 명의

유권자들이 있다. 여기서 당선되는 21명 만이 58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의 입성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대략 18: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당연히 현직 국회의원들이 훨씬 유리하며 자카르타에 출마한 후보들 중엔 대중에게 이미 충분히 이름을 알린 현직 장관들도 있다. 그 중엔 국민각성당(PKB)소속 이다 파우지아 노동부 장관도 있고 김종성 후보와 같은 골짜르당 소속 디또 아리오페조 청년스포츠부 장관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치분석가 우장 꼬마루딘은 대개 돈과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총선 레이스에서 외국인 출신이라 해서 다른 후보들에 의해 딱히 경쟁력이나 당선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외국인 출신보다 토착인도네시아인 후보가 더욱 효과

적으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일단의 사람들과 그런 경향이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 출신 김종성 후보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문화와 가치들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득표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장은 전망했다.

최근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K-드라마와 케이팝에 매료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후보가 공략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후보는 유세를 진행하는 동안 각각의 연령층 유권자 그룹들이 그에게 각각 다른 첫인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해 익숙한 대부분의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을 아직도 외국인 여행객 정도로 여기는 장년층 유권자들에 비해 훨씬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KT, 일본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통신사와 해저케이블 건설 협력

KT가 아시아 국가 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터넷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해저케이블 건설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신규 아시아 해저케이블 건설을 위한 ALPHA(Asia Link for advanced Performance of High-speed Access)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인도네시아, 일본 사업자 등 각국 대표 통신기업들과 지난 24일(한국시간) 체결했다. 이번 MOU를 바탕으로 KT 등 각국 대표 통신사업자들은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건설할 예정이다.



▲신규 아시아 해저케이블 MOU체결 모습 (사진제공=KT)

이번 MOU는 해저케이블 설계와 기술력은 물론, 운용 리더십까지, KT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KT는 국제전용회선 및 국제인터넷 수요 충족을 위해 APCN-2, APG 등 7개의 국제해저케이블을 해외 국제통신사업자들과 공동 운용 중이며, 그

중 5개 해저케이블에서 컨소시엄 의장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KT는 이러한 해저케이블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 검토 및 적용, 최적 루트 확보 등을 포함한 ALPHA 해저케이블 건설방안을 컨소시엄 사업자와 2024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KT Enterprise 통신사업본부 명제훈 본부장은 "이번 ALPHA 케이블 건설을 통해 Enterprise 고객의 급증하는 아시아 지역 내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시트래픽 수용에 적기 대응하겠다"며 "안정적인 국제통신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LS

### 대한민국 1위 전선회사 LS전선, 인도네시아에서도 자랑스런 1위입니다

저압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z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Jakarta 영업소**

Revenue Tower  
Jl. Jend. Sudirman kav 52-52 No 8  
Senayan, Kebayora Baru,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90  
Tel: 021 3973 3988

**한국인 상담**

Tel: 0811 125 302  
0821 2472 2214  
0813 3331 8315

**대리점**

**PT ALJUM GREEN NUSA**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김재훈의 세무상식**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에 관한 규정**

**PMK No. 172/2023**



김재훈 대표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제 72조)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제 75조)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s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법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가 발효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칙(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이다. ALP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여야 한다. ALP는 Arm's Length Principle로 팔길이 원칙이라고 한다. 1946년 잉글랜드 예술평의회를 만들 때 생겨난 용어로서 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행정관료와 예술계는 '팔 길이'로 표현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적 지원을 받기로 권력자가 의도하는 예술을 유도·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조세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서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 : ALP)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팔길이 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팔길이 원칙이란 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

말로 애인 또는 부부관계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간에 형성되면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가 되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팔 길이 이상 거리를 둔 이들 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 원칙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유권 또는 지분 참여로 인한 특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에게 최소 25%의 직/간접적 자본 참여를 한 경우 2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최소 25% 이상의 직/간접적 자본 참여를 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통제로 인한 특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통제하거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2개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당사자의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통제하거나 기술 관리 또는 사용을 통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2개 이상의 당사자에 관한 관리 또는 운영 의사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동일한 자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알려졌거나 동일한 사업 그룹에 속해 있다고 선언한 당사자들 일방이 다른 일방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선언한 경우 혈연 또는 혈연 가족 관계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다면 특수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거래시 거래 가격은 반드시 정상가격이어야 하며, 정상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PMK 172/2023은 11개장,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성의 원칙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적용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정성과 평

상사업 원칙의 적용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제35조)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스트 (제 36~제 39조) 제6장 관계의 조정(제 40조) 제7장 공동승인 절차 제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 처리 (제 43조~51조)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의 철회(제 52조)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제 53조~54조) 제8장 양도가격 계약 제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차 (제 59조 ~62조) 제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회 절차 (제 63조~65조) 제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제 66조, 67조) 제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차(제 68조~70조) 제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차 (제 71조)

**동서발전-LX판토스, 재생에너지로 녹색물류 실현 앞장  
물류센터에 지붕태양광 설치·직접 PPA로 거래 등 실시**

동서발전이 지난 29일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대표이사 이용호)와 서울 종로구 LX판토스 본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판토스는 자사 소유의 물류센터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동서발전은 태양광 발전소의 설계·건설·운영

전 과정과 사업관리 및 전력거래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현재 양측은 태양광발전소 직접 PPA를 체결하고 경기도 안산시 사회MTV 물류센터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직접PPA는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사용할 재생에너지를 2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약 1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게 LX판

토스 측의 설명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LX판토스의 녹색물류 실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LX판토스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서발전의 신재생 사업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신문]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오른쪽)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LX판토스 본사에서 이용호 LX판토스 대표이사(왼쪽)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동서발전

**현지 최적화와 최고 가성비**

# KOTRACK 굴삭기

**Minimum Price, Maximum Satisfaction**

Tilt Link      Quick Coupler

대표이사 **이희재**  
전 대우그룹 굴삭기 개발 및 수출담당  
2000년 코트랙 창업 (학군 25기)  
2020 KOTRACK INDONESIA 설립 (창고 Naroging, 주기장 Griya)  
HITACHI, KOBELCO, KOMATSU 협력업체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GAMA, SKT 등 현지 그룹사에 납품중

**KOTRACK**  
PT. KOTRACK MACHINERY INDONESIA

**HEAD OFFICE**  
Signature Park Grande Unit CTC/L1/03 Jl. MT Haryono Kav.20  
Cawang - Kramat Jati Jakarta Timur 13630 Tel: +82-10-8732-2928  
E-mail: jaylee@kotrack.com    Kakao talk ID: hj9204

SIDE TYPE    TOP TYPE    SILENCED TYPE

# 인니 재무장관 사임에 대한 추측 난무...투자 위축 우려도

인도네시아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리 물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내각 직에서 사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의 아이콘이 떠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스리 장관은 대답을 회피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U)의 선임 경제학자인 파이살 바스리는 이번 주 초에 스리 물라니와 바수끼 하디물조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포함한 조코위 내각의 장관 15명이 정부 윤리 위반에 대한 우려로 사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라니는 지난 19일 기자들이 이 소문에 대해 물었을 때 부인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및 동료 장관들과 교육 기금, 유흥세, 누산따라에 수도 지위를 빼앗긴 자카르타의 특별지정 법안에 대해 세 차례 회의를 마친 후 자카르타 모르데카 궁을 떠나면서 "일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동료들은 모두 스리 물라니 장관의 퇴진이 임박했다는 추측을 부인했다. 골까르당 의장이기도 한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9일 유흥세 관련 회의에 참석하려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 소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18일에는 줄끼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 겸 국민수권당(PAN) 의장은 기자들에게 유연비어를 퍼뜨리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PDI-P) 대선 후보 간자르 뿌라노워의 러닝메이트 마흐무드



▲ 지난 19일 스리 물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자카르타 모르데카 궁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안따라/ Mentari Dwi Gayati)

MD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스리 물라니나 다른 장관들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재무부 통신정보서비스국의 데니 수르잔토로 국장은 소문에 대한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스리 물라니 재무부 장관은 여전히 국가 재정과 좋은 거버넌스 책임을 보호하는 의무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공공사업부 대변인 엔드라 S. 아드마위자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현지 매체 뎀뵈(Tempo)는 지난 19일, 스리 물라니 재무장관과 대선후보이자 현 국방장관인 뿌라보워 수비안또 사이에 예산 문제를 두고 이견이 커지는 것이 재무장관이 사임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골까르와 국민수권당 등 친정부 정당 선거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뿌라보워 후보는 지난 7일 3차 대선 토론회에서 재무부가 국방 예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밝

혔었다.

또한 그는 국방부가 카타르에서 중고 다쏘 미라지 2000-5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이유로 예산 제약을 지적하며,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의 신형 제트기가 도착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중고 제트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뿌라보워와 같은 인도네시아군(TNI) 장군 출신인 물도꼬 대통령비서실장은 스리 물라니를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물도꼬는 내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투쟁민주당(PDI-P)의 확대되는 균열

일부 내각 구성원의 사임 소문은 조코위와 여당 투쟁민주당의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총재 사이의 관계가 풀린 후 나온 것으로, 이들은 다음 달 투표에서 대통령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킹메이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지도자의 관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입후보 연령 제한 예외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이 자신

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카를 경쟁자인 뿌라보워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 장관들은 기브란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대통령의 야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각에까지 불화가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화는 지난 1월 10일 투쟁민주당 창립 51주년 기념식에서 메가와띠가 청중석에 앉은 내각 장관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행사에 "초대받고 싶다"고 말한 스리 물라니도 포함됐다.

또한 메가와띠는 이 자리를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권력에 굶주린" 지도자들에 대해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 불참한 대통령은 행사 참석 대신 여러 이웃 국가를 순방하기로 결정했으며, 투쟁민주당이 "당 간판"이라고 자주 언급했던 사람없이 기념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 투쟁민주당이 내각에서 모든 장관을 해임할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나왔지만, 일부 장관의 개별적인 유보에도 불구하고 당은 조코위 행정부에 대한 헌신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것을 강조해 왔다.

잠재적 파급 효과 분석가들은 스리 물라니와 바수끼의 사임이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과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말한다.

KB 발부리 증권(KB Valbury Securitie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꼬리 뿌르마나는 스리

물라니가 지난 10년간 신중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재무장관의 사임은 국가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꼬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리 장관이 사임할 경우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측면에서 자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의 정치 분석가 헨드리 사프리오스 스리 물라니와 바수끼가 대통령의 개발 어젠다를 달성하는 데 있어 수행한 주요 역할을 대중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사임하면 "조코위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알자흐르(Azhar) 대학교의 정치학 강사인 우장 꼬마루딘은 재무장관 사임설은 "조코위 대통령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리 물라니가 사임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사임하더라도 "그녀를 대신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 PRIME SPA AND HEALTH CARE CLUB

# 산소(O<sub>2</sub>)같은 사우나!

쾌적함과 청결함은 사우나의 기본입니다.  
PRIME SPA 는기분을 잘 지키는 상쾌한 휴식공간입니다.  
또한 사우나와 헬스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재충전 및 휴식공간입니다.



Karawaci Lippo Maxbox Mal, Jl. Boulevard Jend. Sudirman No. 1110, Bencongan, Kec. Kel. Dua, Kab. Tangerang, Banten 15810  
Tel. 021 3893-4005 WA. +62 8224-900-3560  
E-mail. primespa001@gmail.com

# 인니 정부, 고속철도 연장 '수라바야에 앞서 족자카르타부터' 검토



▲자카르타 할림(Halim)역에 정차해 있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열차(사진=자카르타 경제신문/Aditya)

고속철도(HSR) 컨소시엄 KCIC (Kereta Cepat Indonesia China)는 우수(Whoosh) 고속철도 노선 연장에서 동부 자바의 수라바야와 연결하기에 앞서 족자카르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의 수도 반둥을 연결하는 이 철도의 연장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몇몇 분석가들은 수라바야까지 노선을 연장하면 프로젝트의 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CIC는 노선 연장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드위야나는 슬라뭇 리아디 KCIC 사장은 지난 25일, "먼저 족자카르타까지 선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라바야로 곧장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문제"라고 말했다.

드위야나는 교통부, 해양투자조정장관실 등 관련 정부 기관과 이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투기꾼들이 땅값을 올릴 수 있

다며 수라바야로 가는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선로를 놓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교통부 대변인 아디따 이라와띠는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연구 계획이 중국과 아직 논의 중이며, 교통부 철도국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연구가 진행될지, 입찰 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우수 서비스를 자카르타-반둥 노선으로 제한하면 KCIC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이자 중요한 비즈니스 허브인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잇는 고속철도 연결은 작년에 자카르타-반둥을 잇는 우수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훨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연장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우위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영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정부가 허용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KCIC의 2023년 12월 재무 전망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영 첫해에 3조 1,500억 루피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측에 따르면 KCIC는 현금 부족지원(cash deficiency support, CDS)을 통해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은행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적자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측 KCIC 컨소시엄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국영철도 운영사 그레타 아베 인도네시아(K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CIC는 올해 2조 루피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 95% 이상이 티켓 판매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따르면 서비스 운영에는 3조 3,200억 루피아가 소요되고, 대출 이자와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조 8,400억 루피아가 추가로 할당되어야 한다.

올해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KCIC는 3조 4천억 루피아의 현금부족지원(CDS)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수라바야 연장과 관련하여 자금 지원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다.

HSR 노선이 개통되면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철도 이동 시간이 5시간에서 총 4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동차로 9~10시간이 걸리는 일반적인 이동 시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축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PLN, 수랄라야 3, 4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검토 중



▲인도네시아 반둥주 찰레곤의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 2023.9.28(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 PLN은 수랄라야 (Suralaya) 1~4호기의 전력 생산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단계적 석탄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반둥의 수랄라야 3, 4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4개의 석탄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총 1,6기가와트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지스만 후따줄루 전력국장은 정부와 PLN이 시행비용과 일정을 포함해 발전소 폐쇄 계획을 아직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PLN이 이 프로그램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스만은 지난 18일 "아직 가동 중단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더 자세한 논의와 계산 후 양해각서 체결과 재정적 마무리가 되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탄 발전소 폐쇄는 인도네시아가 전력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옵션 중 하나인데, 주로 자금 부족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

지스만은 자바와 발리 전력망에 4GW의 과잉 전력 공급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몇몇 신규발전소 가동을 2~3년 미뤄야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2~3년 동안 몇몇 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일(COD)을 미뤄서 미지급금 누적을 방지하고 PLN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전국 발전 용량을 4,182메가와트를 추가했는데, 이는 장기전력조달계획(RUPTL)에서 목표한 3,886MW보다 높은 수치다.

이 수치에는 특정산업 또는 상업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며 해당 시설의 소유주가 관리하는 전속 발전소(captive power plants)는 고려되지 않았다.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 지스만은 인도네시아가 약 10년 전에 대규모 전력 생산을 위해 도입한 35,000MW 계획은 7~8%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에너지지구(DEN) 사무총장 조코 시스완또는 18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폐쇄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 중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랄라야 3, 4호기 외에도 높은 배출량과 낮은 효율로 인해 다양한 석탄 발전소가 조기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 설비용량 3.4GW의 석탄 발전소 7기를 운영하는 수랄라야 발전소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석탄 발전소다.

PLN의 위험관리 책임자인 수로 두스다르는 수랄라야 1~4 석탄발전소가 점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전력 부하의 변동에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10월 23일 끈판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재 발전 용량이 85%~90%로 감소했으며, 75.87%까지 계속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진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 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 친환경: NOx 40ppm 이하
- 증기건도: 98%이상
- 보일러효율: 99%이상
- 연소제어: 비례제어



###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 컴팩트한 설계: 폭 1,960-2,730mm
- 증기건도: 98%이상
- 보일러효율: 90%이상
- 연소제어: 스텝제어



영업 담당 : 이 광 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 제조공장(서산 소재)



www.dylboiler.co.kr

# 인니 대선 1차에서 끝나나... 1위주자 프라보워 지지율 50% 넘어 조코위 대통령 장남이 러닝메이트... 1차 투표서 과반 시 결선 없이 확정

새달 14일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 후보인 현 국방부 장관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에서도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게 된다.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PWS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호 2번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지지율은 52.3%에 달했다.

기호 1번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는 21.3%로 2위였고, 기호 3번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는 19.7%로 3위였다.

인도네시아는 대선에서 결선 투

표제를 시행한다. 1차 투표에서 3명의 후보 중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만 놓고 오는 6월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내달 대선에서 이번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되는 것이다.

현 국방부 장관이기도 한 프라보워는 이번 대선에서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의 상승세에는 여전히 지지율 70%대인 조코위도 대통령의 지지 덕분에 해석된다.

그는 2014년과 2019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두 번 모두 조코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2019

년 정적이던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선거법까지 바뀌며 자기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만들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되려면 만 40세가 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30대지만 수라카르타 시장인 기브란에게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이자 기브란의 고모부인 현재 소장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



▲자카르타 시내에 걸려 있는 2024년 대선 후보 프라보워-기브란 포스터.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기호 배석해 결국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최근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면서 대통령으로 종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프라보워와 단둘이 만나 만찬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프라보워의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V자를 만들어 흔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내 민주화 운동 인사들 사이에서는 프라보워 후보가

대통령으로 적격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인 출신인 그는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던 전 사위다.

그는 장인의 후광을 업고 인도네시아군의 요직을 지냈고, 199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자 이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1997년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민주화 운동가 22명을 납치하고, 1998년 인도네시아 반화교 인종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프라보워는 이를 부인한다.

우리 입장에서 다소 걸끄러운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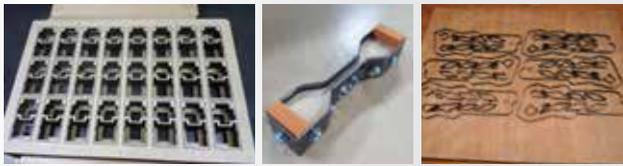
프라보워는 2019년 국방부 장관에 오르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과 진행하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내지 않아 약 1조원을 연체 중이다. [연합뉴스]

## 톱스 목금형(톱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스금형, 특수 칼금형

# 2023.11.12. ~ 2024.02.10.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To vote for the 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voters shall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3.11.12. ~ 2024.02.10.  
Period of reporting an overseas absentee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2024.02.10. 까지  
By 2024.02.10.  
Period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alter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n overseas voter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 ~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공관방문·순회접수  
Via Internet website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ova.nec.go.kr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 인도네시아 채굴업체들, 니켈 가격 하락 장기화에 대비



▲(니켈 광산업체 AKP 홈페이지)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업체들은 수요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글로벌 공급 과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6일 전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광산을 폐쇄한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니켈 가격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공급 감소로 인해 곧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발레 인도네시아(Vale Indonesia)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바유 아지는 니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목표를 70,800톤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주요 배터리 재료의 장기적인 가격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광업 회사의 전략에 대한 자카르타포스트의 질문에 “Vale는 회사의 운영 비용을 간소화하는 등 통제 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 상품 가격 보고 기관인 패스트마켓(Fastmarkets)은

지난 15일 중국 니켈 시장에 대한 2024년 프리뷰에서, 니켈은 2023년 LME(런던금속거래소)와 SHFE(상하이선물거래소)의 비금속 복합상품(base metals complex)중 최악의 성적을 거두며 두 거래소에서 40% 이상 가치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고서는 약세 정서가 1등급 니켈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2024년 하락세가 2023년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켈과 니켈 파생상품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은 전 세계 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의 억만장자 앤드류 포레스트의 와이루 메탈스(Wyloo Metals)는 22일, 서호주 사업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고, 이어 멜버른에 본사를 둔 BHP도 같은 주에 있는 니켈 가공 공장을 폐쇄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는 2023년 니켈 생산업체들이 가격 급락으로 균형을 잃은 후 1월에 발표된 네 번째 발표다.

그러나 빠닌 증권(PT Panin Sekuritas)의 상품 분석가인 펠릭스 다르마완은 기업들이 발표한 감산 조치가 결국 “그린 메탈(green metal)”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요건을 50 베이스스 포

인트 인하한 이후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중국의 경제 정책이 최대 1,400억 달러의 유동성 증가를 촉진하여 세계 7위의 니켈 생산국인 중국의 산업 심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펠릭스는 25일, 이러한 중국의 경제 정책이 니켈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능력 증설은 한때 공급 부족에

직면했던 세계 정련 니켈 시장에 급격한 공급 과잉을 가져왔고, LME와 SHFE 모두에서 니켈 가격을 폭락시켰다. 국제니켈연구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니켈 시장은 2023년 10월에 18개월 연속 월간 공급초과를 기록했으며, 2023년 첫 10개월 동안 193,200톤의 누적 초과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책임자 로베르투스 하디는 2024

년에도 시장이 연간 공급 초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글로벌 니켈 시장의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니켈 가격이 2022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니켈 산업은 시장 메이커리즘과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여러 국가의 니켈 생산량 증가 야망에 의해 크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니켈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 약(藥) 이야기

우리말엔 가끔 헛갈리는 단어가 많다. 약(藥)과 관련된 복합어가 그렇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농담조로 물어본다. “애들아, 설사약은 설사를 멈추는 약일까, 설사를 하게 하는 약일까?” “피로회복제는 피로하게 하는 약인가 보지?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말이야” 라고 하면 외국인 학생들은 정말인 줄 알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약(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병이나 상처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일체의 물질’을 의미한다. 가끔은 ‘해로운 동식물을 없애는 데 쓰는 물질’이라는 뜻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된다. ‘농약’이나 ‘모기약(?)’을 뜻하는 것인데, 보통 생각하는 약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구두약도 마

찬가지다. 구두에 광을 내는데 쓰는 물질인데 약이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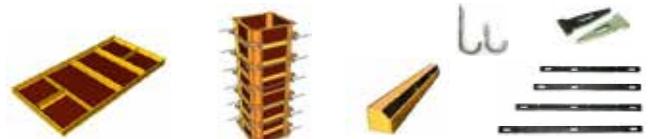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을 고치거나 치료 또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확장되어 ‘죽이는 것’까지 의미하게 된 것이다. 피임약도 ‘죽이는 약’이다. 뭘 죽이는지는 몰라도 수정하지 못하게 하니 죽이는 것이 맞다. 설사약보다 지사제(止瀉劑·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라는 말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까 한다. 한자를 알면 편한데 안타깝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 유로폼 & 부자재

EURO FORM & ACCESSORIES



#### 인도네시아 생산 제작

- 유로폼 규격별 주문 제작, 판매.
- 부자재 제작, 판매 (Wedge Pin, Flat-Tie, Hook).
- 유로폼 임대 (신재, 고재).
- 유로폼 고재 수리 및 FORM 교체.

#### FIRE DOOR 제작

(2시간 내화성능)



#### 철골 제작, 설치



PT. INDOBAJA KARYA GLOBAL.

Mobile : 0822-1926-6628 0821-2238-2014.

Jl. Raya Pasar Kemis No.25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건설, 토목, 플랜트**

- PT. HESSA**  
자카르타 0821 1464-1343
-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 PT. KORINDO HEAVY INDUSTRY**  
망그랑 021 595-0088
-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망그랑 021 5579-8505
-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건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망그랑 021 5579-3855
-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UJ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5736
-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PT. 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망그랑 021 5577 4507~09
-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망그랑 021 5935-0229
- PT. HAECHA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  
종 판넬 공사  
망그랑 021 5568 5408
-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망그랑 021 5541-747
- PT. BUANA INSKONSI JAYA**  
Waste Energy Plant, Electrical, HVAC  
망그랑 021 3973-1528

**공단 및 지사**

-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 국기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ENGINEERING**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 유신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2409
-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 PRATAMA JAYA**  
Engineering  
망그랑 021 5576-8070
-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 PT. JINWOO ENGINEERING**  
망그랑 021 597-7810
-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망그랑 021 5577-2538
-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Civil,  
M&E, Treading  
망그랑 021 5578-0702
-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망그랑 0254 781-3709
-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망그랑 0254 781-3709
- PT. JAYA TEKNIK KONSTRUKS(Besar/PMDN)**  
Engineering & Construction  
반튼/세랑 021 5574-1492

**건축설계 사무소**

-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 PT. 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기**

-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 정석 테크 아바디**  
종합전기, Electrical & Supplier  
망그랑 021 5566-2989
-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망그랑 021 5940-2939
-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망그랑 021 5574-6345
-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망그랑 021 5949-2764
-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망그랑 021 5577-4507
- PT. W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건축자재**

- LS전선**  
자카르타 021 3973-3988
- PT. 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씰링,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망그랑 021 5940-4086
- PT. ARI TECH INDONESIA**  
공장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망그랑 021 5428-7777
-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망그랑 021 5579-0456
-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K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망그랑 021 596-9775
-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 KORIA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망그랑 021 5940-0081
-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망그랑 021 596-0522
-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망그랑 021 5940-0288
-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망그랑 021 5579-7181
-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설비**

-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필레곤 025 434-0319
-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 PT. 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망그랑 021 5940-2454
-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트레이  
망그랑 021 558-6446
-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망그랑 021 2901-5282
-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 PT. SUNG HWA PLUS**  
Total Fire Protection Solutions  
자카르타 021 4064-2114

**인테리어**

- HDG**  
Interior, Branding,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7205-007
- 채우디자인**  
Design & Build  
자카르타 021 8946 9398
- PT. 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7884-9247
- PT. 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 PT. 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 PT. 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 PT. KES INDONESA**  
Interior & Exhibition  
망그랑 021 558-2105
-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주)소리항공**  
PT. 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 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 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 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 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 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ina Logistic Service**  
망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 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짜까랑 021 2956 3356/57

**ITL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PT. KGL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56 3356/57

**중장비, 기계**

**KOTRACK**  
중장비  
자카르타 82 10 8732-2928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PT. 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망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 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망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여행사  
자카르타 021 7504-578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망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망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망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망그랑, 짜까랑, 브카시, 스마랑, 자카르타, 보고르외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망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인력관리, 용역**

**PT. AGUNG SINAR BUNGKUK**  
인력파견 관리, 경비, 생산직, 사무직 등  
자카르타 021 8952 7463

**유니폼, 작업복**

**PT. KOTIK BATIK INDONESIA**  
작업복, 유니폼, 단체복, 현장조끼  
자카르타 0812 8118 6936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 등

인쇄/출판 광고도 Kwanggaeto

# 인쇄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올해 세계 건설시장 6% 성장... 14.6조 달러 전망**  
건설연 보고서 “불확실성 있지만 발주 증가 기대”

올해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전년 보다 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동 건설시장의 성장과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성장세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선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한국건설연)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6% 성장한 14.6조 달러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 관리연구실장은 영국 금융정보회사 IHS Markit의 발표를 인용해 고유가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건설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동 시장의 규모는 6,698억 달러, 전년 대비 11.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시아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6.9조 달러로 예측된다. MENA 주요 7개국 (사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914호 [매일건설신문]

디, UAE, 이라크,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의 2023~2024년 발주 예산 규모는 1조 달러로 해외건설 진출 확대가 필요한 시장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건설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그러나 OECD,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의 올해 세계경제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혼재돼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하락,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 감소, 금리 인하 가능성,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경기회복 등은 낙관적이지

만 전쟁 등 지정학 불안 심화, 중국 경기회복 둔화, 고금리 지속가능성, 에너지·곡물 가격 등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폴리코노미 현상 등은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손태홍 연구실장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해외건설수주는 ‘기존 시장의 발주 환경 개선 지속’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개발 방식의 발주 증가’ 등에 힘입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은 시장 모니터링 확대와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출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건설신문]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망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4년 기준 Rp 2,978,764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sup>2</sup>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bc@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bc@muns.id, munsbc33@gmail.com  
[www.muns.id](http://www.muns.id)

# 비행시간 6시간 싱가포르는 58만원, 7시간 발리는 128만원 왜? 항공 자유화' 안 돼 주 23회 운항으로 제한...저비용항공사 진입 불가에 가격 안 내려가



▲가루다항공 [자료사진]

서울에 사는 회사원 박 모 씨는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생각했지만, 항공권 가격 조화를 해보곤 포기했다. 3인 가족이 가려고 보니 비행기 값만 400만원 가까이 나와서다. 대신 항공권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싱가포르를 택했다.

실제로 한 항공권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2월 9일 인천에서 출발해 1주일 뒤 돌아오는 최저가 왕

복 항공권을 조회해 보면 비행시간 7시간 10분이 걸리는 발리는 128만원이다. 반면 같은 날짜에 비행시간 6시간 30분인 인천~싱가포르 왕복 항공권 최저가격은 58만원이다.

박 씨는 “비행시간은 1시간도 차이가 안 나는 데 가격은 2배가 넘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

되지 않아서다. 항공 자유화가 돼 있지 않으면 운수권이 있는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고, 운항 횟수도 제한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상호 주 23회만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대형항공사(FSC)만 운수권을 갖고 있어 뒤늦게 영입해보려는 저비용항공사(LCC)가 낄 자리가 없다.

반면 싱가포르의 항공 자유화 협정 덕분에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어 티웨이 항공이나 싱가포르의 스쿠트항공 등 LCC가 다니고, 가격도 싸다. 인천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로는 주 78회 항공기가 뜨고 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비슷하다. 베트남으로는 주 200회 넘게 운항 중이고 태국과 필리핀으로는

주 100회 이상, 말레이시아로는 주 60회 이상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

우리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 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 중이다.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최근 현지 안타라 통신 기고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발전과 한국에서 일하는 3만4천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항공 자유화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자” 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항공 자유화가 안 되는 이유는 자국 항공사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보수적인 정책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인 가루

다 인도네시아(가루다항공)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경영이 악화했고, 재무 개선을 위해 항공기 보유 대수를 크게 줄였다. 항공기가 부족하다 보니 자카르타~인천, 발리~인천을 각 주 4회씩만 운영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항공사가 있는 운수권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 항공 자유화에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항공 정책을 결정하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가루다항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이권을 지켜주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높게 쌓은 산업 보호 장벽이 경쟁을 막아 매년 양국을 오가는 60만명이 넘는 두 나라 국민만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 Korea Genuine Lubricants (유탄유)



# Shell

- 유압작동유
- 열매체유
- 기어유
- 엔진오일(발전기)
- 기타

유인대 대표 0811 83 43 98 021 598 0222  
 이광선 부장 0812 1007 7732 08118411 134 (WA)  
 Natasha 0812 1121 1010 yusung.jayaabadi@gmail.com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